

## 전남쌀값 하락 부추기는 전남도

월세 10억 들여 유통업체에 1포대 당 3000~5000원 지원해 판촉 쌀시장 교란에 전남쌀 이미지 훼손 ... 3개 유통업체 특혜 의혹도

전남도가 전남쌀 홍보 판촉 예산을 특정 대형유통업체들에게만 지원하면서 업체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역설적으로 이러한 지원이 쌀 도매상들의 가격 인하 경쟁을 초래하고, 쌀값 하락까지 부채질하면서 지역농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 생산 31만t 쌀 시장격리'를 정부에 건의해온 전남도가 이른바 이익보전금 형태의 지원금을 특정 대형유통업체에 지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대형유통업체 3곳과 함께 전남쌀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 행사를 진행 중이다. 10억원 예산을 들여 대형유통업체 3곳이 10~20kg짜리 전남지역 농협쌀 1포대를 팔면 전남도가 3000~5000원씩 지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전남쌀 홍보와 판매 촉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지원이 전남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고급 쌀이라는 이미지를

를 희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생산 과잉으로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에 초과생산물량 31만t을 조속히 시장격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오히려 이 지원 정책에 따른 판촉행사가 쌀값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쌀 유통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양곡도매업자가 남기는 이익이 포대당 500~1000원 안팎"이라며 "수십만 포의 쌀이 3000~5000원 할인된 가격에 시장에 풀리고 있어 도매업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가격인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세로 전남쌀 가격 인하 운동을 전남도가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인 특정 대형유통업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금 덕분에 매입가 그대로 판매해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도 공모 과정 없이 임의로 롯데상사, GS리테일, 와이마트(옛 영암마트) 등 3곳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따로 공모 절차는 없었

며, 과거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 3곳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곡물업자는 "매입 가격 그대로만 팔아도 지원금 10억원이 남는 '땅집고 해업치기' 사업을 정상적인 공모 없이 선정한 것은 특혜"라는 입장이다.

전남쌀 판촉·지원행사가 전남쌀 소비를 오히려 가로 막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원사업 물량 20만포(20kg 기준)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타지역이 아닌 광주·전남에 풀리는 기이한 구조로 사업이 설계된 탓이다. 대형업체 3곳에 배정된 물량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만여포가 광주에만 매장 60여개를 운영하는 영암마트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시중보다 3000~5000원씩 저렴한 전남쌀이 풀리면서 지역 곡물유통업자들이 전남쌀 대신 충청권 등 타지역 쌀을 들여와 중소형마트, 식당 등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마트와 농협 하나마트 등에서선 20kg들이 햅쌀이 5만원대 중후반에서 7만원대로 판매되는 반면 영암마트에서는 '행사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4만원대 후반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전남쌀이 타지역보다 비싸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전남 하루 70여명 코로나 연쇄 감염

방역 강화에도 집단 감염 여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 광주·전남에선 공공기관 직원, 백화점 직원, 경찰서 유치장 입감자, 교회 목사, 어린이집 원생 등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 내 연쇄 감염이 이어졌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선 40명이 추가됐다. 이 중 13명은 담양, 강릉 등 타 시도 확진자와의 접촉자들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구 공공기관(7명), 광산구 중학교(1명), 북구 중학교(2명), 남구 복지시설(1명)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까지 11개 시군에서 36명이 확진됐다. 해남 9명, 광양 6명, 순천 5명, 목포·나주·보성 각 3명, 고흥무안 각 2명, 구례·화순·영암 각 1명이다. 접촉자 검사 과정에서 15명, 유증상검사서에서 8명, 자가격리 중 검사 6명, 타지역 접촉 5명, 병원 진료 전 검사 1명, 해외 입국자 1명이다. 해남 어린이집 관련해 원생 4명, 가족 4명 등 8명이 집단감염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에도 광주(29명)·전남(43명)에선 모두 7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광주는 대부분 타지역 방문이나 외지인접촉, 자가격리 중 검사나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나 나왔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유증상 확진자도 7명이 나왔다. 확진자 중 1명은 구속된 외국인으로 지난 17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교도소로 옮기기 전 받은 진단검사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서구 소재 한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 1명도 코로나19에 확진돼 백화점 측이 긴급 방역 소독을 벌였다.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의 한 교회에서는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유학생으로 최근 입국한 베트남 국적 2명도 확진됐다.

한편, 정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광주·전남 등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영업하도록 했다. 단 식당·카페 등의 경우 시간 제한 없이 포장·배달 영업은 가능하다. 영화관·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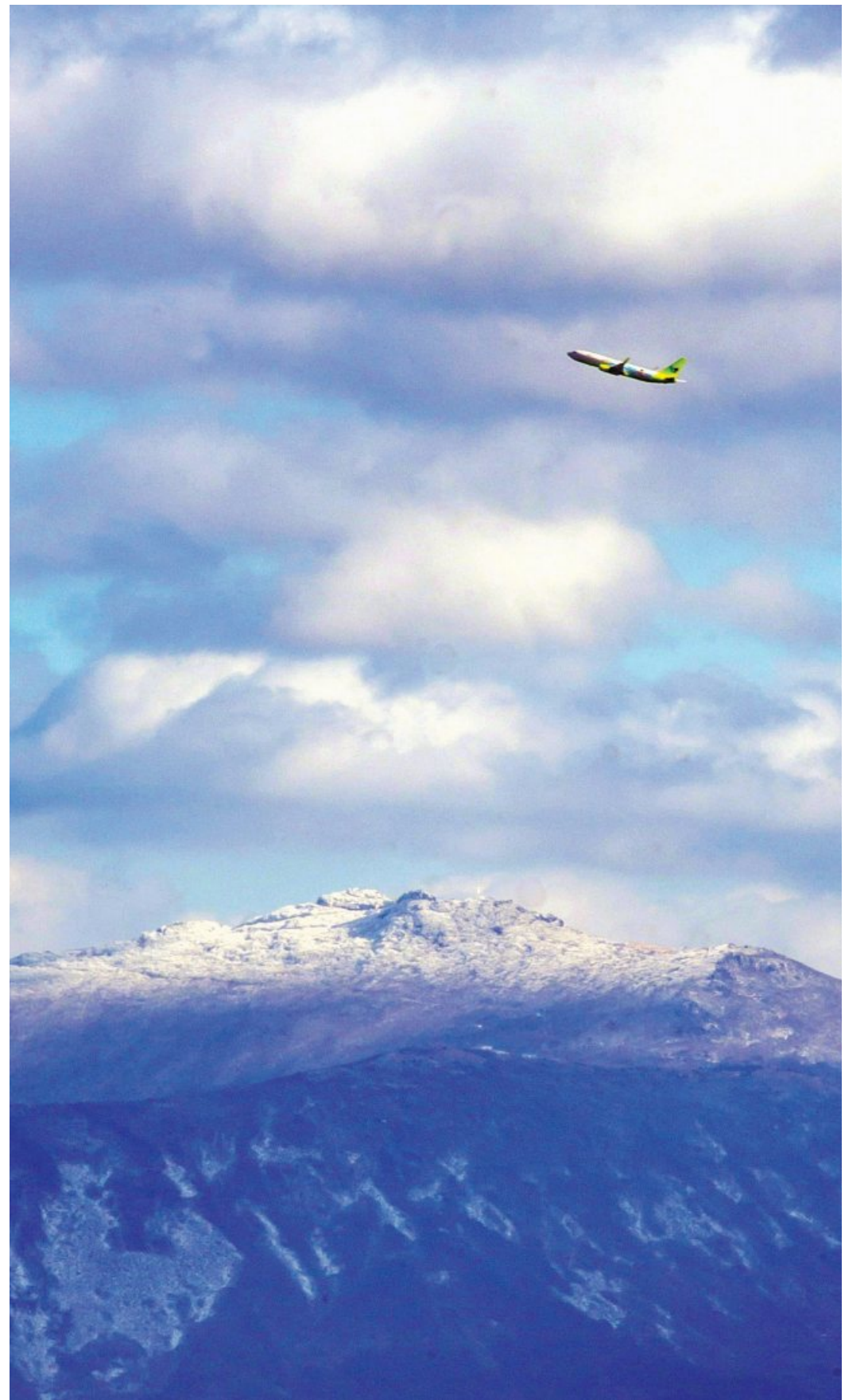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230만곳을 포함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無等雪山 19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중턱에서 바라본 눈 덮인 무등산 정상 부근. 기상청은 지난 주말 몰아쳤던 강추위가 풀리고 이번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잊지 말고 기억해요, 2021 사건·사고 ▶6면

양현종 논란 나성범 실종...속타는 KIA팬 ▶18면

건축물 열전 - 제주도립미술관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DNA 혁신으로 의료 DNA를 바꾸다**

심평원의 믿음직한 데이터가  
가깝고 확실한 병원을 찾아드립니다!

##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평가 항목

- 고혈압
- 당뇨병
- 천식
- 급성기뇌졸중
- 위암·대장암

이용 방법  
건강정보 앱 또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지역의료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고모델 이재운